

왜 自然景觀을 찾는가

崔永基 (応用美術家・本協会員)

自然景觀을 찾는 理由는 한마디로 말해서 健康을 찾는 길이다.

우리들의 健康을 찾아주기 爲해서 國家는 景勝地를 골라 國立公園을 만들어 大自然속에 안끼우도록 할 人間의 本然에 姿勢를 되찾게 할 것이다.

요새 흔히 公害나 汚染이니 하는 말들을 異口同聲으로 말하며 야단 났다고 한다. 都市公害가 人命을 短縮시키고 科學公害가 人類를 滅亡케 하는 무서운 問題들을 낳고 있다.

人間은 고마움을 갖이고 있으며 우러나는 情感은 꽃과 나무를 사랑하며 어지러운 世事속에서도 大自然의 雄志를 터득하고 그들 感受하는 知性을 갖는다.

왜 공기좋은 숲속에서 山莊을 갖이려 할 뜻있는 사람은 내 故郷에 내려가 先山下 草野에 묻혀 흠을 매만지며 흠내음, 풀내음에 젖어 살다가려 하는가.

都會生活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선풍기가, 에어콘이 아무리 좋다해도 산바람, 강바람만 못하고 푸르른 나무그늘이 좋고, 산골짜기 맑은 물이 좋기 때문이다.

人間頭腦의 發達은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自然의 真理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人間本然의 姿勢는 時代文明의 흐름따라 不条理에서 逆流하는 氣象을 空氣間에서 發見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들이 人間生存權을 찾는 復元運動이 바로 大自然保護運動이다.

이러한 自然景觀이 없이는 人間이 살 수 없다. 人間도 自然과 더불어 살고 自然과 더불어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은 人間들의 어머니요 품안이다. 그리고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

나는 山을 사랑한다.

山寺靜景의 神秘로운 초승이 깊은 真理의 요람속에서 무엇인가를 기구하는 木鐸소리는 사파世界를 더듬는 명상을 더욱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精神世界로 이끈다.

森羅萬象의 울창한 大自然의 審美感은 人間의 生涯가 무엇때문에 存在하는가를 다시금 反省케 하는 것도 大自然의 攝理가 아니겠는가.

大自然에서 태어나서 大自然으로 돌아가는 真理를 立脚하고 生存競爭이라는 險惡한 生活戰線에서 汚染된 氣流를 호흡하며 來日에 사는 人間들의 아우성은 大都會라는 태두리를 벗어나야만 한다는 기막힌 現實을 여찌하라.

이러한 번민으로 일시나마 잊으려고 멀리 떠나보는 것도 정신과 몸을 닦아보는 하나의 수단임이 틀림없다.

山으로 바다로 山紫水明한 景觀을 찾아서 가는 곳은 첫째, 自己나름대로의 健康을 되찾아 보자는 몸부림이다.

나라에서 여기 저기 國立公園을 만드는 것은 國民의 健康을 爲해서이고 보면 막상 自己의 할 일을 제쳐놓고 다만 遊覽삼아 觀光하려는 뜻은 얹어졌다. 精神回復의 계기를 만들어 주며 참된 真理를 찾으려는 것이 國立公園의 意圖이다.

大自然에서 받아드리는 人間의 感銘이 心身단련의 役割이 된다.

國立公園의 意義가 넓게 말해서 公園이며 깊게 말해서 人間精神을 순화하는 環境教育으로 이끄는 道場이라 하겠다. 天國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自己가 얼마만큼 大自然을 아름답게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며 그안에서 살 수 있는 氣分, 環境이 天國이요 요람이 된다.

그 審美感의 滿足은 곳 마음의 天國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地上天國이요. 神仙圖의 한 場面일 것이다.

꽤 막힐 정도로 답답한 都會의 濁流를 呼吸하며 사는 人間일수록 불쌍한 것도 없다.

科學이라는 文明의 利器가 뒤로는 人間을 害치는 무서운 公害라는 이름을 가져왔다. 이러한 汚染된 現實을 어찌 하라.

이러한 問題때문에 大自然이라는 真理를 渴望치 않고는 못 백이는 時代的 感覺을 切感한다.

그러므로 大대의 運動을 展開한 것이 自然保護運動이요. 國立公園造成的 도약이·根元이다.

大自然의 審美感을 喪失한 人間일수록 잔인하

고 비정한 社會를 만드는 毒소의 原因이 된다.

흙내음 속에 묻혀 흙을 매만지며 사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다. 그리고 그 순박한 人情을 찾아 볼 수 있다.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大自然의 真理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大自然은 거짓이 없고 多情多感하다. 庭園이 없는 豪華住宅은 죽은 집이다.

그것은 바로 沙漠에 세워진 이름모를 碑木이지 무엇이겠는가.

大自然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自己를 달래며 克服할 수 있는 人間像이다.

短 信

第 14 次 IUCN 總會 代表派遣

아시 하바드에서 - 金憲奎理事參席

全世界的인 自然保護關係團體의 聯合體인 IUCN(國際自然保存聯盟)의 第 14 次 總會 및 專門分科會議가 오는 9 月 25 日부터 10 月 5 日까지 10 日間 「소비에트」聯邦의 하나인 「투루크멘」의 「아시 하바드」에서 開催되는데 加盟團體인 韓國國立公園協會에서는 金憲奎理事가 代表로 參席하는데 같은 加盟團體인 韓國自然保存協會에서 參加하는 代表와 韓國代表團을 形成하게 된다.

IUCN 30 周年 記念式과 新任總裁의 就任同意 및 各分科別 地域評議員, 各分科別 委員長 등의 選出과 自然 및 自然資源의 保護를 위한 各國政府에서 建議文과 決議案이 採択된 이번 會議에서 金憲奎博士는 總會와 國立公園 및 保護地域委員會에 主로 參席하게 되는데 出國은 9 月 中旬이다.